

■ 교회소식 ■

1. **졸업예배** :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오늘 교회학교 연합으로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2. **교사임명** : 2017년 교회학교 교사임명식이 오늘 교회학교 연합예배 중에 있습니다.
3. **임원회** : 예배 후 1분기 임원회가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모든 임원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회** : 중구용산지방 지방회가 오늘 오후 3시 이태원교회에서 열립니다. (숙대입구역에서 버스421번을 타고 용산구청에서 하차, 남영역 앞에서 마을버스 02번을 타고 녹사평역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5. **성회수요일** : 이번 주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6. **신앙실천** :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실천사항들을 지키도록 합니다.
* 떡대접 : 강석남 이현숙

다음 주 설교 본문	사40:26~31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김기석	김기석	박기영

1부 영접위원	최미자	헌금위원	진정숙
3월 2부 영접위원	박홍재 박석희	이민범 신정훈	서정순 조항미
2부 헌금위원	김정민 권미숙		

오늘 식당 봉사 유경순 하미림 이유진 임설희 이경아 박구병 송형운 정재기	
다음주식당봉사 박미영 이은주 주은경 송인선 이해선 조성일 박범희 박기영	
오늘설거지봉사 3남선교회	다음주설거지봉사 4남선교회
커피 판매 봉사 6여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박병구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빛으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변화주일 】

인도 1부 : 이범석 목사
2부 : 김재흥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주님 나라는(X3)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14. 주 우리 하나님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눈이 쌓여 있던 자리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잔뜩 어깨를 움츠리며 걷던 사람들은 가슴을 활짝 펴고 걸어 다닙니다. 주님, 우리 내면의 풍경도 그렇게 변화되게 도와주십시오. 마음 곳곳에 있는 얼음덩어리를 다 녹여주시고, 지나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부드럽게 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순절 순례의 여정으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기력한 삶을 뒤로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마태5:10 인도자

▲ 교 독 문 82. 빌립보서 2장 다 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한림 권사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80.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다 함께

▲ 성경봉독 롬 12:1-2 I. 인도자
II. 박영신 집사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I. 김서영 경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II. 찬양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권미숙 권혁순 박혜경 김성우 박유경 김 울 김정민 이해령 김정훈 이진영
김종문 지명주 김준호 광혜자 김중현 성귀옥 김지현 김진우 임미진 김필순
김희진 박홍재 문금석 박기원 이미영 박준희 이기분 백성래 변재민 이소혜
서효진 송효진 오미숙 오자영 오진훈 노순옥 우순덕 유금주 윤성종 김윤정
은종인 이경남 이순이 이영옥 장은주 이유진 이재은 이치림 강상연 이현숙
임승동 백혜숙 장원호 박성희 전수연 정연경 최재욱 이수정 한인철 조윤숙
허명선 허호범 박성실 현 진

감사헌금

김광우 하현일 김미향 김 울 김창숙 박대상 박미현 박재영 이현정 방경선
이고임 이상도 이왕준 송상경 이현규 임선양 신현숙 최형서 한상수 남해린
무명23

생일감사헌금

박효선

녹색꿈헌금

손숙경 양경해 오진훈 노순옥 무명2

■ 집 회 안 내 ■

주일 오후 집회 (지방회)	수요일 집회 성회수요일 예배
-------------------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4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f 청파교회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oups/chungpa>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2017년 교회학교 교사 명단

교회학교 교장 : 하현철
 유아유치부 부장 : 권미정
 아동부 부장 : 곽권희

영아부 교사 : 김수연
 유아부 교사 : 최희영 김민화 김윤하 박민선 신다현
 유치부 교사 : 성유경 김동호
 아동부 교사 : 연준호 박숙미 이선영 이진영 고정환 윤형준 이용현
 중고등부 교사 : 장의림 이부용 박수민 임창국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이범석 신진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 도 사 : 장영숙
 소속목사 : 한인철 한정애
 원로장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조병무 방문성 윤석철
 장 로 : 한완식 한상익 김인걸 박홍재 김정민 하현철
 지 휘 : 강석남 안홍숙
 반 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김진선 김 린
 교회 및 차량 관리 : 김현동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 씬	날마다 새롭게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 양	327. 주님 주실 화평	다 함께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 도 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순례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릇되고 거짓된 길에서 벗어나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르고 선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다 함 께:	아멘. 우리를 새로운 순례의 길로 초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이 되어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변화를 꿈꾸며 살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만 전념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 복			김기석 목사

■ 믿음으로 읽는 글 ■

사순절 묵상집 중에서

- 3월 1일 재의수요일 누가복음 18:9-14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 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우리의 육신과 영이 함께 그 순례길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사순절은 우리의 영적 갈망과 함께 육신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순례를 떠나는 시기이다. 순례를 떠나는 것,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 믿는 자기중심적인 신념에서 깨어나, 하늘의 빛에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보이는 일이다.

바리새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종교적, 영적 삶의 중심이었다. 그의 기도는 모두 자기로 가득 차있다. 그는 성전으로 올라갔으나 그 성전 꼭대기에 자기를 두었다. 반면 세리는 하늘에 비친 자기를 의식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 세리는 성전 뜰 멀찍이 서서 기도했으나 그의 기도는 성전에 메아리쳤다.

우리는 사순절에 우리의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야 한다. 이 두 측면의 성공과 실패, 옳고 그름, 그 드러난 모습에 대한 우리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고, 즉 자기중심적 신념에서 벗어나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겨야 한다.

- 3월 2일 요한복음 1:29-34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도적 인물은 요한이다. 그의 행동은 '바라봄'과 '말', 두 가지로 드러난다. 인간에게는 보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새롭고 낯선 것, 그리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을 보고자하는 갈망이 있다. 그 갈망을 따라 깊이 들어가면 그 끝에서 근원이신 분을 보고자하는 우리의 갈망과 만날 것이다. 그 갈망이야말로 모든 바라보는 행위 속에 깃든 거룩한 갈망이다. 요한이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는 말씀은 우리의 거룩한 갈망이 실체가 되었다는 선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육신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의 얼굴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의 얼굴에서 하나님 자녀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안셀름 그뤼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반사하고 있다. 우리가 모든 것 위에 놓여 있는 휘장을 걷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안에서 당신 자신을 밝혀 주신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했다. 방사선이 살로 덮은 것을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뼈와 장기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의 눈은 모든 것 위에 있는 휘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사순절에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휘장을 걷어내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보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시는 성령께 자신을 열어 드러야 한다.

- 한국살렘영성훈련원, 2017 사순절 묵상집 <은총으로 걷는 십자가의 길> 중에서